



‘해’가 있어 너무 맑다. 맛있는 밥, 별  
관한 것. 어떤 별관을 토로하지만 기어  
할 것은 알지 못한다. 우리 학교의 올바른  
발전은 위해서도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무심하고 있을 게 ‘내가 하겠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과연 무일  
이기가 하는지 돌아보자



해방이 보이지 않는 대우 문제, 노조가 구  
조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가?

2001년 12월 31일 편입이사회가 종료되  
는 우리대학교는 구제단의 복귀를 눈앞에 두  
고 있는 ‘시한부’ 체제다. 이에 우리학교  
본 아니라 여러 분야학과 시간, 사회단  
체들이 사람학교를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  
섰다. 이에 대한 보도와 함께 반향을 관전  
이사항의 전 경향과 전망도 돌아보자.



인턴의 바다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보공  
유, 양방향의 싸움이 본격화 될 조짐...

재정전문 아니냐는 언론자본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소유구조  
언론의 소유는 국민이라고 하는데,  
아예 아닌 것 같죠? 성공회대 신병호  
김사중 교수에 대해 남기로운  
비판을 제기합니다. 의견이요.



동일시대, 최대, 협력사에도 우리 학생  
회 간부들은 왜 여전히 집착하나요?

## 서울총학, 기호 2번 이승주-용환삼 조 당선 용인, 총학 · 단대 선거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연장선거 끝에 ‘숨’ 한번 크게 쉬고 못  
자. 오늘을 살아내는 당선은 강하게 기  
호 2번 이승주(사회) · 정지호(97) · 용환삼  
(서울) · 네덜란드어 95) 조가 35대 총학생회  
총학생회 선거 개표에서 기호 2번 이승주 · 용  
환삼 조는 재적인원 680명 중 333명(51.0%) 무  
표 307표, 오차 0)이 참여한 가운데 1800표  
(50.9%)를 얻어 143표(40.4%)를 얻은 ‘개방학  
부’ 기호 1번 조경래(법 · 법학 95) · 박지은  
(통상 · 인문 97) 조를 309표차로 눌렀다. 이  
날 총학생회 선거 당선자 이승주군은 ‘한국의  
자본주의 재건 속에서 우리학교는 한 것이 없  
다. 애국외대에 통합적인 대중운동체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8일(화)까지 치러지는 각 단과대학 선  
거는 중앙선거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일정이  
끝났다. 서양어대는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재연  
(라틴어 98) · 황태희(이태어 98) 조가 재  
적인원 253명 중 118표(46.1%)를 투표한 가  
운데 찬성 1026표(88.1%)를 얻어 선출됐다. 상  
경대는 재적인원 1000명 중 602명(55.2%)이 무  
표한 선거에서 김정경(경제 98)군이 332표를  
얻어 박상진(무역 98)군과 7표 차이로 당선됐  
다. 캠퍼스 발전 박종영(99)군이 143표  
를 얻어 121표를 획득한 차은주(97)군을 누르고  
당선됐다. 또한, 사범대는 김재동(영어교과  
99)군이 투표인원 233명 중 256명(87.4%)이 찬  
성해 선출됐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오는 28  
일(화)부터 30일(목)까지 3일간 총학생  
회 및 5개 단과(통상, 통상대학, 통상대학, 자  
연대, 생활협동조합)가 일제히 선거투표에 돌  
입한다. 각 단과 로비에 비치된 투표소에서 투  
표가 진행되며 개표는 30일(목) 6시, 언론관  
식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서울배움터 35대 총학생회 투표결과 기호 2번 이승주, 용환삼군이 당선됐다.  
물론은 중장기 발전에 수반, 구제단 세력 복귀반대 등 그들이 내세웠던 공약처럼 교육 · 교수 · 학생 3주체의 힘을 모아 학원적  
주체 실현을 위해 이들을 하는 2001년 총학생회가 되기를 바란다.

사진부 hyodeng@hanmail.net

## 용인, 총장퇴진 서명 2천명 동참 교육부, 재단, 대학평의회 등 집결결과 전일 예정

용인배움터 2000명의 학생들이 총장퇴진 서  
명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1일(수)부터 24일(금)까지 2주 동안  
총학생회는 ‘용인배움터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 해결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총장직에서 사  
퇴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총장퇴진 서명을  
통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 내로 결과를 알리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장 이승민(인  
문 · 철학 90)군은 ‘용인배움터의 문제를 공론  
화시키는 것과 다시 한번 총장의 결단을 촉구  
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금) 총선거 이후,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 22일(수) 부총  
장, 학생회장, 학생대표 3인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이 진행됐다. 스터디수업 없는 학과 통제  
할 반대 등 등록금조달위원회 구성 △동양학대  
교비 지급 중단 △간학비정금 50% 축소 △총  
장의 지시로 강행한 한수학 철회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으나 대학당국은 각 사건마다  
개별적인 입장을 밝힐 뿐 해결을 위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우혜나 기자 mmo329@hanmail.net

## 25일 ‘반미행동’의 날

‘소파(SOFA) 전면개정 미국내에 행동’의 날  
행사가 지난 25일(목) 종료로 마무리됐다.  
양민학살 진상규명, 매립된 미군 국채 폭적  
장 폐쇄, SOFA 전면개정 요구 등 그간 벌어졌  
던 학생 · 시민 · 사회 단체들의 반미행동을 결  
집,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열린 이날 집회에는  
약 5백여명이 참여했다. 개회사를 이어 매립된  
반대매, 소파 개정국민행동 등 각 단체의 정치  
연설도 진행된 집회는 마지막 결의문 낭독으로  
끝을 맺었다.

학교측의 노조극장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 마  
련이 늦어지고 있다. 도서관공공청에서 학  
교측 대표는 지난 15(수)까지 구체적 해결방안  
을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도  
서관 2중창 설치문제와 한관 개폐문 교체문제  
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과는 지난 9일  
(화) 의인부대 공문 중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각 알람실 남, 북관에서 측정할 결과  
공문시 도서관 내 소음은 평균 77.3dB이었음에  
비해, 관소 도서관 소음은 55.7dB로 나타나 노  
조극장 공문연유에 따라 수확환경에 영향이 있  
음을 보였다.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관리과장 서은택  
씨는 “구체적인 설치방안에 대한 결정이 예산  
과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현과 문  
교재나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해결책을 구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거속보란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총학생회 · 양경수 · 황환삼 조  
총학생회 · 박지은 · 최문정 조  
통상대학 · 통상대학  
통상대학 · 정지호  
자연대 · 이장현  
생활협동조합 · 학생회 · 이은숙 조  
27, 28일(화)  
27, 28일(화)  
통인 연행복과장 · 김진혜

통상대학 · 김경수 조, 28일(화)

28, 29, 30  
신분증 지참하세요

관문점을 통한 북한 기행단 백두산 통일기행

- 등록금 인상저지, 교통문제 완전해결, 제 2 기숙사 건설
- 학회 · 동아리 연습실 건설
- 구제단 복귀 반대! 민주 총장 선출! 민주적 학사운영으로 외대 개혁 실현! ...

지휘가 여러분의 거친 손이 되겠습니다  
고운 손에 쥐어진 여러분의 소중한 헌표를 주십시오

총학생회장 후보  
양경수(통상대학 95)

부총학생회장 후보  
황환삼(인문학부 94)

### 도둑과 복소리

▲도둑에게서 다음의 일곱 가지를 배울 수 있다/ 그는 밤늦도록 자지 않는다/ 그는 자신  
이 목격한 일을 허락받아 끝내지 못한다/ ... /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들/ 자  
기 자신의 일하러 간다/ 그는 시련과 위기를 견뎌낸다/ 그는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 /도둑에게서 배울점(한) 주시어  
/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조금씩 걸어 또한 그렇게 사립학교/ 만일 어떤 이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일을 못한다면 아마도 그는 다른 복소리를 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 그 바자가 고르거나 또는 늦거나 그로 하여금 그가 듣는 복소리에 발 맞추게 한다/ 다  
른 복소리(한)의 데이트 소문

▲이번 서울배움터 35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 40% 투표율로 인해 하위 연장 투표한 결과  
간신히 반을 넘은 51.0% 투표율이 나왔다. 게다가 당선자 연승주와 1번측의 39표 차이  
비해 투표율 30%도 채 채투표를 할 위기가 컸었다. 뿐만 아니라 각 단과와 학  
생회의 투표율이 규정 투표율을 넘지 못하는 등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부족이 드러났  
다. 토요일 아침 도서관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대다수 중 “누가 당선됐지? 당선이 됐으면 당  
선소감 대자보를 붙여보자, 학생회 애들은 이제 문제야” 이런 학생의 일문일답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96년 ‘연대행동’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에 학생의 조직자식, 탄압이 있어  
트면서 학생의 건국의 부활과 학생회 체계는 변화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구성원들의 계속  
적부족과 학풍을 비롯한 학내 문제나 복지사안에 대해 소음, 사회 · 정치적인 문제에 대  
한 관심부족 등 학생의 일문일답이 적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갈수록 ‘우리 배움터’는 나  
를 중시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나와의 상관없이 매 등을 돌리고 일 사방으로 고만고초는 스  
터디포트 한판만 더 중요시하는 등 개인주의가 점점 더 심해져가는 학생회라는 모습. 또  
한 학생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회, 이제 그러저 있는  
학생회를 일으켜 세우어야 할 때가 왔다. 앞으로 학생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도둑에게서  
배울점들 배워라” 그리고 학생회의 구성원들이 학생들에게는 “다른 복소리에 귀 기울여라”  
고 간절히 얘기하고 있다. 그레아만 혼자서 아닌 여럿이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효정 hyodeng@hanmail.net



## 근시안적 시각 벗어나... 구체적 연구·조사 필요

## ‘외대발전’에 학생은 없었다

## 취업전쟁, 장기적 대책 세워야

전쟁 되살려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

[illegible]

**생각이십니까?**

정 보르헤스(19%)

주요한 공헌자(28%), 실현  
불가능(45%)

구상원의 노력에 의해  
실현 가능(26%)

글을 받습니다

지적: 학제(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제한 없음 / 매수: 200자 원고지 4~5매 / 마감: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투고방법: 학생기자실(학생회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나우 OEDAE, e-mail oedae@hammail.net) /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예제된 논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mainco.hufs.ac.kr/~weekly

휴산은 Huf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의 존명입니다

## 외대학보

### 자료사진, 설명 곁들여야

자료사진에 꼭꼭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775호 11면 '안동대, 파병생각로 학생회 성서로 극복'이란 기사에 실린 자료사진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저의 사진이 게재돼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진이 어떤 의도로 실렸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기사의 전달성을 오히려 해치는 듯 했습니다.

이보형(사회·신문방송 98)

### 본관신축 문제 심도있게 다뤄주길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학보에 있다. 본관신축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종호(상경·경제 94)

서울배움터 복지위원회위원장

### 토론회 기사 신중함 필요

지난 775호 10면에 저희 민주노동당 외대지부의 토론회 기사를 실려 반겼습니다. 하지만 기사내용을 단편적으로만 토론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기사와 함께 좀 더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외대지부)

다 답변: 본보 10면에 '바로잡습니다'란에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합니다.

### 대중적 칼럼, 기획기사 보완해야

평소 문화면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문면에 건학 음악이나 영화평들이 들어가지만 문화면에 이런 대중적인 칼럼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획기사가 부족한 듯 하다.

정태형(사양·영어 99)

## 빈번한 언어 성폭력, 단호히 대처하자

'강간을 한 번 당해서 그렇지 여러 번 당하면 어차도 좋아할 것이다'라는 수업 시간 동안에도 교수님의 발언. 취직하려고 애쓰는 여학생에게 '취직 안해도 여학생은 시집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교수.

수업 시간에 기사와 관련한 주제가 나오면 이런 여학생에게 물어보았네 하고 하며 여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교수. 꼭 여자는 집에서 살피는 것이 제일이라는 소리 같다.

'여학생은 남학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날 기회를 잡아야 한다' - 서양어대 교수-

위의 글은 지난 1학기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적 제정 과정에서 '학내 성폭력'에 대한 백지 대안보고서 발췌한 내용이다. 학내 성폭력 중 학생 간의 성폭력 이외에도 교수의 성폭력, 그 중에서도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교수의 언어 성폭력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성취발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음담패설이라고 봐도 될 수 있는 여학생에 대한 말도 '농담'이라는 말로 덮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서울대 황우익

교수는 수업 시간 언어 성폭력으로 교수 언어 성폭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IC통신, 진보매, MANIFESTO) 교수가 가해자인 학내 성폭력의 경우가 비단 언어 성폭력 뿐이지는 않는다. 우리의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교수들의 성폭력은 단연 언어 성폭력이다. 하지만 수업 시간 중에 불쾌하기도 문제 제기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 성폭력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 여성신문, 조아라를 기자. 먼저 교수는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다. 사제자간이라는 것을 발미로 학생들에게 권하게 접근하고 학업과 평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력을 확립해 성폭력 문제제기 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주종관계'라고 불리는 교수와 조교간에는 성폭력의 정도가 심하여 그에게 교수가 자신의 생계를 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발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바이올린 클레식 첫 수업에서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 수

업에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나 팔 등의 자세를 바로잡아줄 때입니다. 그런 접촉이 불편한 학생은 미리 말해준다면 절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라는 당부의 말을 한다. 미국의 대학교나 대학교는 하지만 성폭력에 관한 한 세 부적인 학칙이 있고, 학교에서는 매 학기 시작 전 교수들에게 성폭력 개념과 예방책을 상세한 예를 통해 교육하며 학생을 대할 때 조심해 조심할 것을 거듭할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대학에서 교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철저하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남용함으로써 배움의 터에서 함께 하는 학생 혹은 다른 이들과의 믿음의 관계를 깨는 행위인 성폭력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 수업 시간의 언어 성폭력에 대해 교수 스스로 '성폭력'이라는 인식도 없고 있지도 못하며 수업 시간에 당당한 교수에게 반대할 용기있는 학생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제정이 완료된 학내 성폭력 근절 학칙 1장 2조 나항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수들의 언어 성폭력은 명백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문제제기의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교수 언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지점에서 의무로 되어있는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수들에게도 철저히 강제해야 하는 학교측의 각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성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수 언어 성폭력의 근절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이다. 수업 시간의 언어 성폭력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말자. 우리도 듣는 귀가 있다고,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언어 성폭력을 나쁜 것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혼자 하는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아 학교측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등의 끈질긴 노력을 보여주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단호한 의지만이 교수들의 언어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허준주 (사법·불교교육 96, 서울배움터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 연장 투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다.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것은 물론, 이전까지에 대한 평가까지, 직접적인 자신의 의사표현 방법이다. 대학내의 선거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외대에도 선거철은 돌아왔다. 그리고 학과와 같이 다시 연장 투표에 돌입했다. 연장 투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대학사회에서 학생회는 하나의 공동체 공간이었다. 1학년이 들어와서 과선배라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같이 마시며,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가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직접 자신이 행동할 수 있는 생활의 공간으로써 학생회를 인식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총학생회 선거연장 투표를 하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으며 무엇이 공동체라는 서에서 소외를 느끼게하고, 그 공동체의 우리를 괴리 시키었는가?

어떤 학생들은 이러한 얘기를 한다. 총학생회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

이냐고, 그리고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누가 누구인지 구분도 가지않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학생들 만나서 점점 학생회가 학생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들은 학생회를 신뢰하지 않고, 학생회는 학생들을 마음대로 재단한다. 그것이 지금의 선거 연장을 낳은 원인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학생과 학생회는 따로 떨어진 관계인가? 그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 때 우리는 학생회가 모서서 이야기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학생회만 것을 다시 알게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러진가, 학생회는 학생들을 재단할하며, 이러한 것이라, 학생들은 이런 것은 몰라,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학생회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이 운영의 주체가 됨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과정상 외대의 연장 투표는 2년째 계속되었다.

조금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다. 과연 학생회라는 것이 대중조직이려면 정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학생들도 자신이 스스로 주인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이

무엇인 학생회라는 것을 소중하게 지켜하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동현 (사회·행정 98)

### 우리 애들은 노는 물이 달라

-서울대생 학부모

사회교육부의 무한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

교육도 부의부인인을 추구하는 이 현실...

-빈민

now, it makes sense.

-대학교동원위원회

나눠 8학년 출신인데, 나눠 나뉘는 75%...

-미련



주제: 서울대 신입생의 약 25%가 서울 강남 8학년 출신이라는...

서울대 출신 8학년 아이들! 어! 빈부격차를 알기 전까지 정치제 진출하지 마라.

-경제계

대를 이어 영원히...

-골수 서울대파

합한 입시, 예비 서울대생의 대리가 되어

-8학년 골짜기학생 연합회

자본이 더 다른 계급을 양산한다.

-기

1000의 하나된 2000의 세희망으로

2000

공대학술제

학술전시회

노동발표회

공대장비 포토리스대회

강연

공대한마당

2000년 11월 29일(수) ~ 30일(목)

정보산업공학관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언어, 정보, 문화'

- 일시: 2000년 11월 30일(목)
- 시간: 09:00-18:30
- 장소: 서울배움터 국제관 대강당
- 주최: 언어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학술대회 일정

<학술발표 I>

·시회: 박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시현(시문사단 명예교수) '언어란 무엇인가?'  
(이강)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화 시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3개 발표

<학술발표 II>

·시회: 박정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웹인간 권 18과 비화경언론의 동시대 연구'  
P. Schmitter (한국외국어대학교/Master 대학교)

<학술발표 III>

·시회: 송진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재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 구문 분석기의 원리와 실제'  
송기현 (한국외국어대학교)  
'XML: New Internet Lingua Franca'의 2개 발표

언어의 문학, 두 개의 분리된 세계?  
(독일어로 발표/통시통역 제공)의 2개 발표

대우자동차 노조 3/2 다녀오시기

우리는 열심히  
죄 밖에 없소



▲ 지난 24일(금) 회사측과 마지막 협상을 하고 나오는 대우차 노동자들. 권리를 행한 자는 처벌없고 노동자들의 고통만을 감호하는 회사측의 요구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의지만큼 회의실을 나오는 노동자들의 얼굴은 굳어있었다.



▲ 대우자동차 부형공장 가동중단으로 공장 곳곳에 있어야 할 자전거가 노조사무실 앞에만 줄을 서고 있다. 계단 곳곳에서 답답한 미레를 생각하며 뿌연 담배연기를 한숨과 함께 내뿜고 있는 노동자들에게서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 대우자동차 노조 대변인 최중화(32)씨. 손에 든 것은 기자들의 명함이지만 그동안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보도한 기사는 없었다고 얘기한다.



버림 받은 계층에 관심을 가져주기론

[illegible]

“자식 붙음값은 있어야 하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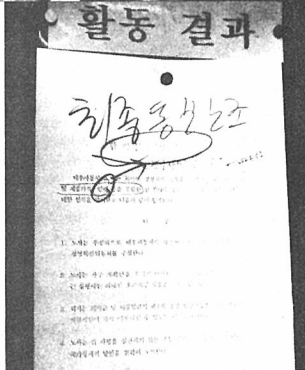
비밀을 뜻해서 애매하게 하는 경향이요. 한 번 이런 식을 행한 분이 있는데 그 이름도 난데로 써줄 게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들에게도 또 다른 2번에 대해 생각해 보자. 2000년 겨울이 유난히 추운 시기를 맞아, 서울 회현동미리 경찰서를 맞이해온 몇몇 택시 운전사들과 택시들의 사진도 촬영하며 들춰보았다. “나쁜 걸리더야! 차가 비닐감으로 되어 있어 차가 없냐!”라기 시작만 해도 운전자들의 싸움, 이제 그들은 3,500-6000원 리액가량이 넘는 회사와 정부의 거대한 만능조작 장악에 매여야 하는 현실 상황에 처고 있다. 택시를 만지려 하는 택시 안에야말로 대대도둑들의 어마어마한 걸린 수 있다. “부형 택시운전사 출신이 가져다줘서 7000원 정도 걸린 것이야 아니야요. 빈치로 공판 시판할 돈도더러 7000원 걸면 때에도 있잖아? 애끼하는 택시운전사 50살인데, 차 한 번 안 MP로 안온 회사까지 부르면 내 택시 운전장만 있어 한 시한을 걸어 놓고는 눈물까지 흘려가려는 그들 보며 내게 운전장품 가져다 팔지 못해요. 대대도둑 나이가 많았을 때를 떠올려, 그는 ‘그걸 다 살 겁이 없네’만도없는 대대도둑이 되어진 모른다고 애끼하는 대우차장들은 내게 건넵 있어요. 같은 선에서 구로조집 따하는 그들 때에도 내 태운 건지 알았나리? 하고.

통과절차가 복잡한 대우자동차 부屬공장 정문을 지나니 두 번 건물 건물 앞에만 수십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기에 그 건물이 노조사무실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올라가는 계단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회사측과 마지막 교섭을 하는 노사회의를 가리고 있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어. 지난 92년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을지 모르나 1/3가량의 노동자들이 해고당했어. 우리는 동료

들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고 줄줄이 임금을 받으면서 묵묵히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9년이 되면서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 돈을 금융비, 가변비에 쓰지 않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돈을 다 써 회사가 이렇지 이 모양이 됐어요"라며 사람 바깥쪽 가지고 흥하는 것처럼 진한 미소는 없다며 분개하는 집회를 만났다. 이를 바깥기회를 구구 꺼려하는 그의 모습에서 회장의 그 돈의 행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무기한 확장정부를 한 행위자들에 대한 책과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해방매력을 되찾고자 대한 책임소재를 피한 채, 구조조정 동의를 이끌어 도모할 것이 없느냐 때때로 회색 지대의 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처럼 해보았으므로 언론에 대해 일문불문 하느냐”라고 제기하는 정경진(43세)은 반박보단, “대통령 임명 철폐나 다른 세법문제로는 대처는 매우자 직접 이해와 말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회답하는 데 반박한 뒤, “월급이 1천만 원은 처음이네요. 예가보면 다른 이보다 10배를 하고 있는데요. 애초부터는 아바가 쥐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거는 한문해가 넘나들며 물어 말하고있고 있다. 다시 노는 사정할 수 없으니 노노할양이 서둘러 회의를 들고가고 있었다.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잡성 노노와인걸 대해 ‘임대나’는 노노할양의 복속자가 틀렸다. 10여만 가나인 걸과 회의를 나오는 노노할양의 열은은 단한히 노노할양이다. 노노할의 걸과 인걸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은 일보할 수 없는 시로 이 안하을 할아나.”

지난 20일(월) 인천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이든 노동자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해고해 기업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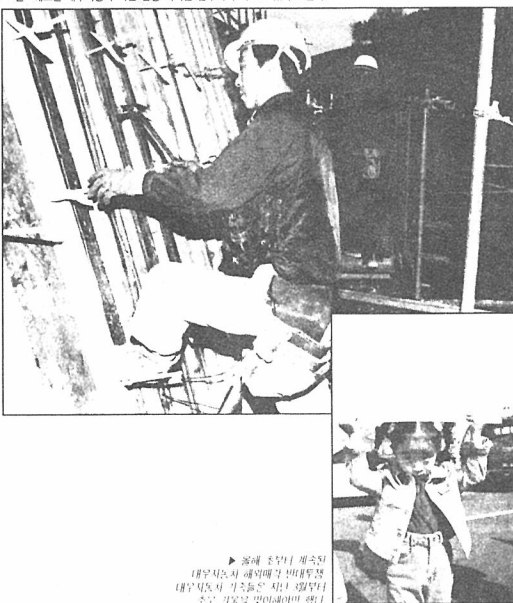


▲ 최종합의서, '인력구조조정' 문구를 뺀 흔적이 선명하다.

지를 맞이하야 한다며 철저한 구조조정을 한다면 대우자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 “요즘은 죽겠다. 밥을 먹어도 살이 가는 지는지. 김대중은 아침, 저녁으로 중소기업에 발명가로 나가고 말하며는 학교 다니다가 백악기 이르바이트 나가고 있어. 나이를 먹어서 잘라도 취직할 곳도 없는데 걱정이야. 나가고 정”이라고 말하는 대우자동차 직원.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의 금말과 대우자동차 직원 하의 작업복의 부조화라는 “대우 대우”라는 곳의 모습은 1994년

제작 사진부

▼ 4개월 가량의 임금체불로 인해 수도세조차 낼 수 없는 노동자들은 막노동판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지방광고지에 는 '해고된 대우자동차 직원 환영'이라는 문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 올해 초부터 계속된  
대우자동차 해임파각 반대투쟁  
대우자동차 기술들은 지난 3월부터  
총금 삭감을 받아야하며 생

## 주제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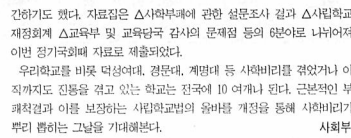


〈한국기자협회 '월간 기자통신' 기자, 사학과 89학번〉

수술대 위에 놓인  
사 · 립 · 학 · 교  
올곧게 서기위한 진통중...

## 자기 희생적인 반부패운동

한편, 전국민적인 문제제기를 접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일에 맞춰 분규사학에 대한 공동정책자료집을 발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F1  | F0  |
|-----|-----|
| 1   | 1   |
| 2   | 2   |
| 3   | 3   |
| 4   | 4   |
| 5   | 5   |
| 6   | 6   |
| 7   | 7   |
| 8   | 8   |
| 9   | 9   |
| 10  | 10  |
| 11  | 11  |
| 12  | 12  |
| 13  | 13  |
| 14  | 14  |
| 15  | 15  |
| 16  | 16  |
| 17  | 17  |
| 18  | 18  |
| 19  | 19  |
| 20  | 20  |
| 21  | 21  |
| 22  | 22  |
| 23  | 23  |
| 24  | 24  |
| 25  | 25  |
| 26  | 26  |
| 27  | 27  |
| 28  | 28  |
| 29  | 29  |
| 30  | 30  |
| 31  | 31  |
| 32  | 32  |
| 33  | 33  |
| 34  | 34  |
| 35  | 35  |
| 36  | 36  |
| 37  | 37  |
| 38  | 38  |
| 39  | 39  |
| 40  | 40  |
| 41  | 41  |
| 42  | 42  |
| 43  | 43  |
| 44  | 44  |
| 45  | 45  |
| 46  | 46  |
| 47  | 47  |
| 48  | 48  |
| 49  | 49  |
| 50  | 50  |
| 51  | 51  |
| 52  | 52  |
| 53  | 53  |
| 54  | 54  |
| 55  | 55  |
| 56  | 56  |
| 57  | 57  |
| 58  | 58  |
| 59  | 59  |
| 60  | 60  |
| 61  | 61  |
| 62  | 62  |
| 63  | 63  |
| 64  | 64  |
| 65  | 65  |
| 66  | 66  |
| 67  | 67  |
| 68  | 68  |
| 69  | 69  |
| 70  | 70  |
| 71  | 71  |
| 72  | 72  |
| 73  | 73  |
| 74  | 74  |
| 75  | 75  |
| 76  | 76  |
| 77  | 77  |
| 78  | 78  |
| 79  | 79  |
| 80  | 80  |
| 81  | 81  |
| 82  | 82  |
| 83  | 83  |
| 84  | 84  |
| 85  | 85  |
| 86  | 86  |
| 87  | 87  |
| 88  | 88  |
| 89  | 89  |
| 90  | 90  |
| 91  | 91  |
| 92  | 92  |
| 93  | 93  |
| 94  | 94  |
| 95  | 95  |
| 96  | 96  |
| 97  | 97  |
| 98  | 98  |
| 99  | 99  |
| 100 | 100 |

교 무 처 장

##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



인터뷰 · 우리학교 변형론 재단이사장을 만나

# “구재단 복귀여부는 전적으로 외대 구성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

2001년 12월 31일.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9월 6일, 기존의 비리 재단이사장이 집권 된 뒤로 그해 7월 출현한 우리학교 관선이사 체제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관선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99년 10월 정기국회에서 기존 '해당정신회'가 될 때까지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에서 '관선'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변경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호응하듯 이석경 전 재단이사장은 지난달 30일(월) '동원 재단'이 학교운영을 다시 맡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교직원들 상대로 발송, 구재단의 복귀가 실현되고 있다는 예측도 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보에서는 변형론 재단 이사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평가와 향후 외대의 진로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지난 9월 7일 취임 당시 이사장은 '학내 민주화, 자율성 보장, 공개주의 원칙'으로 재단을 이끌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히셨습니다.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알다시피 관선이사는 해내호응을 주도하며 개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니다. 개혁의 주체는 당연히 학교에 주어진 학생과 교직원들이 되고 관선이사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 관철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에 비추어 평가해 보았을 때 학내 안정과 자율성 보장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것 같다.

일단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임된 조규철 총장 체제가 더불어 감사위원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활발하게 학교발전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의외로 수렴되는 구조가 정착되어 왔 것 같다.

올해 국외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구재단이 다시 복귀할 것이 확실하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구성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나는 앞서 언급한대로 학내에 그러한 의견이 있다면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다. 하지만 전국의 1/3이 재단 이사장을 구성하는 등의 조항을 규정한 현행 사립학교법엔 독소조항이 많다.

이는 외대뿐 아니라 현재 분규를 겪고 있는 전체 한국사회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금이 개정되어야 한다.

민원 법이 개정되어 외대가 계속 관선체제로 간다면 나는 이미 연임할 것으로 다시 수 없겠지만 사립학교법에 대한 반대의 의견은 공감되는 바이다.

99년 대재단투쟁을 승리로 이끈 후, 구재단의 부패의 그늘에서 벗어난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는 등 학교발전에 대한 의지들이 높습니다. 이러한 학교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임초기부터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혁신을 생각해왔다. 그 첫째는 민주적으로 실행되는 교수들을 선임하는 것. 둘째는 분규가 있을 때 구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과 차원에서 결정하자는 것. 마지막으로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에,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다음으로는 재단 확보에 힘써야 할 것 같다.



임기를 1년 1개월에 달하고 있는 변형론 이사장은 "임의로의 재단에 대한 구성원들의 가감없는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인데 워낙 재정 구조가 부실해 그 점이 가장 큰 걱정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재원확보가 가장 급선무다. 이는 관선이사 체제를 벗어난 후 정사 체제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전반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시급하다. 여러차례 당부하고 있지만 중장기 발전안이나 학내 민주화 관련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다. 99년 대재단투쟁때 그러했던 것처럼 교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구성원들의 성과로 외대가 지난 날의 위상과 영광을 재현할지 바란다. 또한, 지금은 재직자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각 위원회에 대한 실질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 예산 산 자문위원의 등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학내 민주화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잃지 않고 믿고 나갈 것이다.

여러모로 학교가 중요한 사항인 이 때, 학교의 전사 주어진 외대 구성원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서문 기자 oedae98@hanmail.net

단학교 (반)재단 투쟁 사례모음

## 공금형령 · 교수불공정 임용 등 전횡... 법적 제어 장치 시급

### 상지대

상지대는 재단이사장이었던 전 민자당 국회의원의 김문기씨가 돈을 받고 학생과 교수를 선별하고 할당 포기 작세하게 하기, 등록금으로 방장하고 공금유용하기 등 막무가내 비리를 저질러 오다가 93년 재선공개때 불용이 나서 구속되면서 당면인 99년부터 관선이사 체제(이사장 이상)를 유지해 오고 있다.

교육부는 한때 상지대를 '도립화'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립인 상지대를 도입으로 바꾸면 연간 200여 원 이상의 등록금 수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재단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진단했다는 것. 이와 함께 대학 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재단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됐지만, 국제통화 기금 체제 이후 악화된 국내 경제 여건에서 이 역시 현실성이 적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의 관선 이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작년 8월 임시이사 임기제한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학 전제는 위기감으로 휩싸였다. 특히, 김덕중 전교육부 장관이 상지대 구재단과 현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뱉은 '대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구재단의 복귀를 지지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기 때문.

현재는 '임의로는 변화' 개혁, 무엇보다 반개혁 세력에 대한 참조적인 대응을 표명하는 현관선 전 부총리가 재단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학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 경인여자 대학교

백경자 이사장과 아내 김갑자 학장, 그리고 아들인 박충원 기획실장이 주원재단을 이뤄 등록금이나 국가보조금도 횡령, 비리를 자자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교수회의,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이 분과를 비롯한 각 간부를 점거하며 '비리특별대책위원회'를 요구.

6월 7일부터 17일까지의 교육부 종합조사 실시 결과 경인여대에 관선 이사를 파견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지고 선임된 백경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과 감사 2명에 대한 선임요구가 결정됐고, 이런 무지개 이사회에서 일관된 김갑자 학장도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한 법인이 부담해야 할 결제를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지출했거나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한 외역의 기량을 법인회계에서 과회계로

이에 대해 경인여대 교수·학생들은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된 관선이사 파견을 위해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

### 영남대

영남대는 지난 8월 29일15일부터 현재까지 11번째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대학의 관계자들은 "2년 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학이라면 해당대 임시이사과 파견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며 "임시이사 임기제한은 결국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는 입장이다.

영남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해 온 지난 10여년간을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 덕성여대

덕성여대는 지난 99년 박광국 전이사장 시절부터 현재까지 모교 출신 교수연수자를 전임교원으로 교육부에 허위보고하고 이 사실이 문제되자 교수연수자 전원을 적발한 임용절차없이 전임교원으로 전환하도록 이사 회에서 인력을 가해 대규모 교수불공정 임용이 조장된 이래, '현상금 교수 재임용'을 골자로 사건을 계기로 분규사태로 돌입했다.

이후 구재단의 비리로 이사장이 교체된 덕성여대는 여전히 이사장과 재임용을 골자로 사건을 계기로 분규사태로 돌입했다.

현 이장학 총장의 파행적인 학교 운영이 밝혀지면서 여전한 현 이사장의 책임과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하루 빨리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조선대

조선대는 지난 87년 8월 부당행위를 일삼는 박철용 전 이사장을 축출하고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11월에 걸친 농성 끝에 당시 문교부가 내놓은 학원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임시 이사과 파견된 11년 동안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 이사장은 지난 99년 개원후 6년째 재직하고 있다.

지난 99년 민주총투 선출과 함께 학원 3주체(교수, 학생, 직원) 및 학부도, 동문이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기구인 '대학자치운영위원회'가 학원상에서 명실공히 존재한다. 이 기구에서는 △총장선출에 관한 활동 △법인 이사 추천에 관한 활동 등 관선이사 파견 이후에도 학교운영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리 : 학슬부

Global Thinking,  
Glorious Future

이로써가  
JAMBO!

이로써가  
ottimo

이로써가  
le meilleur

이로써가  
the best

이로써가  
JAMBO!

이로써가  
ottimo

이로써가  
le meilleur

이로써가  
the best

## 2001학년도 특차 · 정시모집

**모집인원**

(특차모집) 일반전형: 891명, 특별전형: 177명  
 외국어우수자 특별전형: 37명, 자립재학우수자 특별전형: 35명  
 (정시모집) 서울캠퍼스: 나 군: 956명, 용인캠퍼스: 다 군: 1,171명

**전형일정**

| 모집구분 | 입학시험 교부                 | 입학시험 접수                 | 합격자 발표                           |
|------|-------------------------|-------------------------|----------------------------------|
| 특차모집 | 2001. 11. (월) ~ 12. (금) | 2001. 12. (목) ~ 12. (토) | 2001. 12. (토) ~ 2001. 1. 12. (금) |
| 정시모집 | 2001. 11. (월) ~ 12. (금) | 2001. 12. (토) ~ 12. (토) | 2001. 1. 12. (금)                 |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가. 특차모집

1. 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90% 이상 또는 1등급 이내의 학생

2. 외국어우수자 특별전형: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90% 이상 또는 1등급 이내의 학생

3. 자립재학우수자 특별전형: 자립재학 우수자

나. 정시모집

1. 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90% 이상 또는 1등급 이내의 학생

2. 특별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90% 이상 또는 1등급 이내의 학생

세상을 호흡하는 젊은 가슴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2길 29  
 용인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로 100

# 인터넷

인터넷 지적재산권 분쟁

## 인터넷 바다 속, 지금은 저작권 전쟁중

무분별한 인터넷 자료 공유, 정보 나누기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나는 한국판 넷스케이프와 일할지 하는 '소리'가 다른 많은 음악가들처럼 검색엔진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자료로 레코드를 쓰고 있다. 참, 한글 97도 외래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했다. 편리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문득 마음이 하나 생긴다. '내가 지금 혹시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운로드 받은 음악, 소프트웨어, 자료들... 하긴 요즘은 모든 예술이 이 정도는 다 사용한다. 저작권 위반은 아니겠지? 레코드가 계속 싸아졌다.

인터넷은 지금까지의 문화의 체계로서 생산자가 만들어낸 문화물 소비자인 일반인들을 문화의 주체, 생산자가 이끌어낸 혁명적 수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발로 일구어낸 생산물을 생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이면도 가지고 있다.

일반인 인터넷 세상에 꼭 빠져 살던 한 대학생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혐의로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터넷 자료면 무단복제 해 배포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새겨져있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지나 인지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인 해비베이트 인터넷 배틀리거는 자신들의 음악을 합부로 공유하고 있는 넷스케이프 사용자의 명단과 함께 넷스케이프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해 인터넷 저작권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혼이 담겨 있는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이다. 그렇기에 저작권의 한계는 이성적인 경우에는 생산자에 의해 정해진다. 소비자가 생산자가 정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현재 넷스케이프, 소라바다 등의 파일공유 프로그램

의 등장으로 저작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카피라이트(copyright)운동과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카피레프트(copyleft)운동으로 나누어졌다.

카피라이트(copyright)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일반상용과 특권이 취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공장에서 만든 컴퓨터를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만든 소프트웨어도 특권이 재산권을 인정해 돈을 주고 사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카피레프트(copyleft)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쓰는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현 저작권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는 일반 물건과는 달리 공유하기가 무척 쉽고, 또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그 가치가 증대하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본다.

일반인 국내 한 업체가 미국산의 국내 다른 로도 독점권을 얻은 것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에 대한 압축구입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63.7%에 더해진다고 한다. 정보 공유, 이것은 인터넷의 숭고한 목표이자 꽃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자가 원하는 정보의 공유는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그것이 생산자의 혼과 정성이 담긴 예술품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제 우리에게선 이런 저작권과 인터넷의 정보 공유의 역할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길에 남았다. 이 과정은 결코 기술의 보양과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 뿐 아니라 저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개방적 인식으로의 전환이 물론 포함되어야 하겠다.

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 생각이

이런지 활용하기!

이런지 활용하기!  
중이의 앞면을 살펴,  
뒷면을 살펴?  
이것이 문제다...  
그냥 한쪽면만 쓰고  
버려지는 중이들,  
당장 쓸때가 없더라도  
이런지 활용을 만들어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활용해요.  
중이의 앞면, 뒷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 카피라이트 (copyright)

정보격차가설 (Information gap hypothesis).

정보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획득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어 결국 부부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가설이다. 이가설은 무형의 재산인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에 대한 재산권인 '지적 재산권'이 강화되면 정보 많이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쪽에 부가 편중되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웹사이드의 대다수가 미국 내에 있고 웹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에 정보소유격차로 인한 부부의 격차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위의 우려가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에 대해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일부 자본주의의 물결이 왔다가 지나가 버린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공산주의가 된 것은 그들이 자본주의의 '자제정화능력'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 문제투성이인 하지만, 자본주의의 자제정화능력 통해 초기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정교에 접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적극적인 정보 생산에 매진하는 것이 바로 자제정화능력에 해

답할 것이다. '정보격차가설'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 '가설'일 뿐이다. 이론을 뛰어넘는 인류의 역량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요약해 보면, 첫째 지적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법적, 제도적 정비 그리고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와 같은 기술적 노력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정보와 부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모든 국가가 보다 능동적으로 저작권의 정보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사실 지적 재산권이 체계적으로 보장된다면 그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정보 생산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적 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와 부의 편중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우려는 말처럼 '가설'로서 끝날 수 있으리라.

참고서적: '인터넷 방송', 커먼,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9 (이것은 지적 재산권임)

김철웅

(서울·영아 99)

### 카피레프트 (copyleft)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상당수의 소프트웨어 사이트가 폐쇄조치된 상태이며, 혹은 운영자가 형사고발된 상태이다. 대학, 기업 등 각종 기관에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네트워크의 발전은 각종 정보 및 자료의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과거,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이 없으면, 불가능하였던 것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정품 소프트웨어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게 되었다. 와레즈(WAREZ)사 이들도, 대부분 정보의 완전한 공유를 표방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정보의 독점자이므로, 커다란 악행이다. 그러기에 와레즈 사이트는 물론, 일부 개인이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의 독점권에 대한 지적재산권 공격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예를 들어보자, 그들은 대부분의 PC에 깔려 있는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잘 알려진 회사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운영체제인 윈도우는 비록, 즉 프로그램의 유통 부수성이 없으므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가 그대로 뒤집어 쓰기도 한다. 한편,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컴퓨터의 하드웨어적 정지도 그들의 운영체제에 맞추어,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그들의 운영체제에 적합하게 프로그램될 되어야만 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대항책으로 리눅스가 집중 부각되고 있다. 리눅스는 처음부터 소스코드를 공개하였고, 세계의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수정작업을 하여, 거의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이다. 오류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네트워킹 상의 수많은 감시자들로써 수정되고, 개선되게 된다. 물론 기술발전에 대한 노고의 대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만을 가한다면, 그것이 가진자로서의 도구에 그런다면, 그것은 제정신이 틀에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저항이므로만 알릴 수 있다. 네트워킹에서 그들의 프로그램을 공개함으로써, 독점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정보독점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좀더 낮은 가격에, 발전된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강제수단이 될 것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정보독점의 해소일 것이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이다.

한형

(상경·정예 94)

### 생활시평

한발짝 다가서면

무관심 됨!

\*\*\*와 학생회장 후보 000입니다. 여러

분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배움터에 나왔듯이 라이카를 탄 선거 후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낯서서 개인적인 소리가 나는 라이카에 학생회장 후보가 타고 여남은 명 되는 선거운동원들이 라이카를 밀며 한때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진정성이요.

비록 지난주 과외장 선거를 지른 또 하나의 선거운동 모습입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은 꼭 꼭 웃음을 터뜨리고 라이카를 미는 운동원들도 즐거워 웃음을 감추지 못했.

다만, 우측 서서 우측을 가리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가지, 라이카에 어느 누구누누 인지를 알라는 캠페인 없는 점이 아쉽기는 했지만 참이다.

눈앞을 끄는 선거운동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기조 1번 후보측은 아원생전원들 '각자이 타겟'을 개사해 찬사를 받았으며 내년 학생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된 기조 2번 후보자들은 전의식 선전전을 독학하게 진행, 이야기 거리가 되었다.

학생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현상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져 대부분의 학교가 연합선거를 치르고 있다. 우리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각 선거운동원들이 고심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무관심을 탈피해보고자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운동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학생들에게 "왜 선거를 하지 않는가?"를 당하기 위해 한발짝 더 다가서려는 이들의 예쁜 모습이 어땠다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주엔 서울, 용인배움터 선거가 대부분 마무리 되지만 선거운동 기간중 활기차게 진행했던 유세들이 그치지 않으면 좋겠다.

라이카를 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만났던 학생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가슴 속에 담아두었으면 좋겠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거운동기간 만큼이나 1년 내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내 '저세대에' 학생회 일꾼들에게 바래본다.

문화부장 oedae98@hanmail.net

# 문단



20세기 한국문학의 탐험

1971년 경기도 광주 대단지에서 주민 50명이 정부 도시집행에 반발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그 현장에 작가 윤홍규가 있었고 이를 배경으로 '아홉살의 구두로 나는 새'라는 작품이 탄생되었다.

사단마차 소설가 문명문학인인 정석주(1900~2000년) 100년간의 한국문학사를 '20세기 한국문학의 탐험'이라는 다작권의 집성으로 정리했다. 8년간의 집필기간과 2013년의 인고와 맞배주듯 이 작품은 20세기 한국문학사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카데미즘이 막대한 문명사적이며 자연주의적 문명을 표방한 이 책은 앞면 뒤면 모두를 나누어 작자 자신의 뜻과, 주요 작품과 작가이해를 곁들여 쉽게 풀어놓았다. 특히 작가의



모닥불

'외로움'이 '사람'이다 '한' 등으로 많이 알려진 시인 정호승씨가 작은 통화집을 냈다. 동시와 시 그리고 단편소설부터 시 모두 산문체에 담겨있었던 정호승씨 정호승씨는 다양한 문학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정호승씨의 이번작품 '모닥불'은 우리가 살아 가는 세상을 시들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소녀를 기다리는 등대, 시로 부딪히는 아픔을 통해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보석과 종과 종의 이야기 등 정호승씨에 얹어진 이 책은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유희로 그런 실망이 그 자연현상으로도 하나의 이야기로 장정한 감동을 준다.



제 4회 국제 노동 영화제

국내에서 제작된 노동자의 삶 및 노동운동, 기타 사회적 현상들을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 국제 노동영화제가 열린다.

올해는 전례없이 열사가 산화한지 30주년,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열린 지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영화제와 영화 30주기 특별전을 시작으로 '검행'이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이것이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또는 유적 비디오 형식의 총 33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매: 11월 28일(화) ~ 12월 3일(일)  
곳: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대학로 소재)

### 〈상영시간표〉

| 날짜     | 상영작 및 시간               | 날짜    | 상영작 및 시간                      |
|--------|------------------------|-------|-------------------------------|
| 11. 28 | 4: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12. 1 | 12: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한국영화) |
|        | 5:00 전대전의 기억           |       | 1:10 사단마차                     |
|        | 6:00 죽음의 포옹            |       | 2:20 동양의 (김남수 감독)             |
|        | 7:00 민주주의의 (정호승)       |       | 3:3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8:00 죽음의 포옹            |       | 4:40 죽음의 포옹                   |
|        | 9:00 바스락소녀             |       | 5:5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10:00 죽음의 포옹           |       | 7: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11: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8:1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12: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9:2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1:3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10:3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11. 29 | 2: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12. 2 | 12: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3: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1:10 사단마차                     |
|        | 4: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2:20 동양의 (김남수 감독)             |
|        | 5: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3:3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6: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4:40 죽음의 포옹                   |
|        | 7: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5:5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8: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7: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9: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8:1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10: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9:2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11: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10:3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11. 30 | 12: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12. 3 | 12: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1:3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1:10 사단마차                     |
|        | 2: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2:20 동양의 (김남수 감독)             |
|        | 3: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3:3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4: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4:40 죽음의 포옹                   |
|        | 5: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5:5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6: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7: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7: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8:1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8: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9:2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 9:0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10:30 가짜의 진실: 30주년 특별전        |

\* 각 프로그램마다 10분 상영을 기점으로 (초반 노동자의 노래 3분, 노동자의 WFO를 부른다). (주: 1회 상영 (신자율주의) 최대 후원 결성위원회) 상영

민노보가 · 공동경비구역 JSA 박찬욱 감독

# “관객 스스로 ‘적’ 이란 벽을 깰수 있게...”



공동경비구역 JSA는 이복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를 맞이하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소재 영화가 처음은 아니다. 영화사와 문제가 있어 직접 촬영 못했거나 '간첩 리얼진'의 시나리오를 썼었고, 데뷔 이전인 90년도에 배정받은 배경으로 남한 기자 천년과 북한의 예술가와의 사랑을 다룬 작품을 구상했었으나 비슷한 내용의 영화제에서도 영화화하지 못했다. 80년대 초에 대만을 다녀와서 이리나 누나나 학생운동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나 역시 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시절 영화를 접하면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 영화의 성격은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런 시도가 선행되었고 이번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영화에 대한 흥행을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흥행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반 영화와 외적인 측면을 보면 최근 남북 정상회담 등 북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정세 흐름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만약 사회 정세가 지금과 같지 않았다면 지금 관객의 1/4도 안되었을 것 같다. 언론이 이 영화에 대해 많이 다룬 것도 영화에 대한 흥행 요인이 된 것 같고 한국인 특유의 민족의식도 흥행의 한 요소가 된 것 같다. 영화 내적인 측면으로 보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심각하고 딱딱한 것(전쟁, 사상 작전 등)이 아니라 슬픔, 유머 등의 감성적인 측면(휴머니즘적인 면)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또한 스타급 배우들의 인기에도 흥행에 한 몫을 한 것 같다.

영화가 보여주는 이복 군인의 친근한 인간적 모습들이 실제 통일 흐름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또 처음으로 관객들이 북을 보는 시각이 변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나와 같은 사람, 동료로 느끼게 되는 과정인 것 같다. 국공의 오해받은 냉전과 자

행사보도 · 올림 정기 학술 영화제

# 뻔한 영화 ‘다시보기’

공동경비구역, 단적비연수, 리베라에... 흔히 대박이라고 불리는 한국영화가 요즘엔 많은 답답함을 이끌어내고 있다. 무수한 영화들이 상품으로 내세워졌을 때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단언되던 때부터 일부는 재발, 흥행의 평가가 나오기까지 90년대 후반의 짧은 시간동안 한국영화는 다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과연 한국영화가 진정한 논쟁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인가?

오는 29일(수)부터 12월 1일(금)까지 3일간 열리는 영화연구회 올림의 정기 학술영화제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화제가 되고 유명해져’라는 이복이 주제인 한국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이상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더 올림 회장 정태연(서울·영아 99)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한국영화를 새롭게 보고 느끼고자 한다고 전한다.

이번 정기 학술제의 주제는 ‘한국영화의 쟁점’으로 이복은 한국영화의 정체를 밝히고 지금까지 이야기 되어지 않은 점을 탐문해본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그동안 동년내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상영되는 영화는 ‘화제’ ‘자유인’ ‘제3자’ ‘우울에 빠진 날’ 등으로 영화와 사회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했다. ‘사실 화제가

라고 흥행작이라고 해서 꼭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영화학자들 다루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든 또한 무엇을 우리에 공부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을 찾아야하며 토론이 되어야한다’고 정태연은 영화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 60·70년대 영화라고하면 내용이 나 배정, 말투가 촌스럽기 그지없고 행동도 과장되거나 어색하다는 것이 좁게 본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지만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한다. 이는 곧 영화야말로 시대를 뛰어넘는다라는 명제에 걸맞은 이야기다. ‘한국영화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혹은 너무 쉽게 읽혀져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또한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 영화제가 뻔한 영화임에도 있지만 시각을 달리하고 약간의 의식의 전환을 꾀한다면 영화를 새롭게 재미있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태연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좀 더 한국영화에 대해 여유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 시 | 1:30 | 3:10        | 5:10 |
|---|------|-------------|------|
| 수 | 화본   | 화녀          | 자유인  |
| 목 | 깊은 밤 | 마부          | 약인   |
| 금 | 화본   | 돼지가 우물에 빠진날 | 깊은 밤 |

# 대인이 외대인에게 서울배우터 상경대 ‘시선’

2000년 3월 8일 외대 학회 사회에 같이남을 사회과학회가 탄생했다... 그 이름하여 시선이었다...

학회 이름을 지을 당시 기존의 사회과학회가 했던 관심과 사회과학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학회 이름을 ‘제3자’라고 정하는 것은 일부 학회원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으나 학회이름을 ‘제3자’로 정했을 경우 ‘나네 언저리 제3자’ ‘월 케논 벨리 제3자’ 등의 타협의 비웃음이 예상되는바 세 차례에 걸친 치열한 투표 끝에 드디어 세 상경대 사회과학회 학회이름이 시선으로 정해졌다.

‘언젠가’라는 시선은 상경대 사회과학회 시선이다. 사회과학회란 원시 이렇고 무서운(웃음)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저의 학회 초창기 상황을 좀 재미있게 적어보았습니다.

2000년 현재의 대학사회를 둘러보면 학우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누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관련

회되고 고립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과학이란 게 뭐 그리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을 기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학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선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미숙하지만 1학기에는 상경대 철학회와 연대하여 ‘2000년 우리에게

5.18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여름방학에는 대한외교 3월 4일의 참혹을 다뤘고 또 생활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사회과학회와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역사도 짧고 선배들도 많지 않아서 세나기인 00학번이 11 학회원으로 시작했고 많이 하지만 모든 학회 구성원들이 직접 학회의 기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자랑스러워 합니다.

상대면이시리구요? 시선으로 오세요. 시선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윤혜림 (성경·경제 99)

# 문화단선

## 27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그림사랑 전시회 ‘환타지’ 열려

만화동아리 그림사랑의 정기전시회가 지난 27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오림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환타지’로 만화학 원고를 기초로 한 3작품과 일러스트 20작품이 전시되었다.

“환타지라는 것이 새로운 이 세상 것이 아닌 신비로움을 자아낸다”며 회장 신혜원(정보산업 공·전산공 99)은 “환타지를 주제로 예기할 거나니 읽을 거나 많은 요즘 이러한 것들은 만화라고 표현해도 심었다”고 기획의도를 전했다.

## 서바이어와 연극학회 ‘MUSA’

오는 28일(화)에는 6시 후북관 소극장에서 서바이어와 연극학회 ‘MUSA’의 준비로 정기공연이 열렸다. “3년만에 재개되는 이번 공연은 여러 여건상 원어로 준비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회장 박인애(서유럽학·서바이어 99)은 “하지만 이번 계기가 앞으로 MUSA가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에 공연된 작품은 장일홍씨의 인간의 얼굴을 한 악으로 결보하는 행복해보이는 한 가정이 속을 살펴보면 악인은 정상적이지만, 가족간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방향을 “이번 극화에서는 부분에서 과장된 표현도 들어간다고 결코 먼 이야기인 아닌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고 정하며 연극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서울

## 27, 28일(화), 불어과 두번째 상 플뤼(Cent Plus) 영화제 열려

27, 28일(화) 오림관 불어과 영화회 상 플뤼(Cent Plus)의 준비로 인문관 대강당에서 두번째 영화제가 열렸다.

‘영화속에서의 속도’라는 주제로 2시, 5시, 7시 하루 3번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에도 속도만이 존재하지 영화속에는 나름대로의 속도감을 함께 느껴보고자한다는 것이 이번 영화제의 기획의도. 이에 회장 윤승이(서양·불어 99)은 “이번 영화제 영화회를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영화 상영 시간표

|    | 27일     | 28일    |
|----|---------|--------|
| 2시 | 불은시선    | 사이닝    |
| 5시 | 포스트모더니즘 | 명상 히어로 |
| 7시 | 케이제네레이션 | 현위의 인생 |

# 서바이어

##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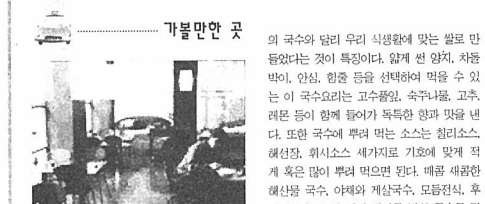
반의 언어를 찾아서

## 쓰겁다(9)

‘내 청 서거시켜. 그만 이야기하지’ ‘쓰겁다’라 말하지 않겠다

쓰겁다·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일이나 행동으로 기분이 언짢거나 마음치 않음. 즉 마음에 맞지 않아 기가막힐 때 쓰이는 표현.

# 외대, 해가 지지 않는다 - ⑧ 베트남어



## 썰국수 전문점 ‘포호아’

지난 99년 강남구 삼성동의 1호점으로서 시작하던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썰국수 전문점 포호아가 한국에 상륙했다. 포호아 레스토랑은 동양인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자리잡고 있는 곳에서는 가장 큰 레스토랑 체점점이다. 1983년에 설립, 썰국수 전문점으로 미국에서 52개, 캐나다 10개, 인도네시아에 18개, 싱가포르에 1개, 필리핀에 2개점, 우리나라에서는 압구정동에 위치한 포호아 레스토랑, 신촌 동호점까지 오픈해 있는 상태로 세계적인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다. 썰국수를 좋아하는 포호아, 포호아를 좋아하는 포호아(Hoia)의 합성어인 포호아(Hoia)는 호이 그대요 교양이 있는 대로 신적 해서 먹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 불만만 영화



## 베트남 자원 활동가 모임

97년부터 시작한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인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친선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대학생들의 국제경험과 봉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의료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한국어교과 등 다양한에 걸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학년에 따라 김경호(경북대 경제학 4)은 “베트남의 문화, 풍습, 언어, 정치, 그리고 다른 나라라는 것 외에 배워지지는 않았던 우리에겐 새로운 나라였다. 외국어인 미국과 유럽선진국을 배워왔던 세 개에는 조금이나마 베트남을 알게 된 게 기가 되었다. 그 3개월, 그 중에서는 베트남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들이었다”고 전한다. 봉사단원 선발은 주관단체인 대학생 사회봉사위원회의 관장이다. 매년 9월경에 각 학교 게시판에 통해 선발모집공고를 한다.

## 여영담



베트남 여행 한 연상철(신문사 주임) 씨를 만나

인요인들이 500명이라는 체제로 골목마다 배치되어서 외국인을 감시했다고 한다. “베트남이 있어왔을 때부터 베트남이란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언젠가 베트남을 향한 마음을 그들 베트남으로 내 놓아야만 한다고 한다. “베트남 급속하게 변화는 베트남에 놀았다. 우리가 10년전에도 이러한 성과를 2.3년에 이루고 있었다...”라며 처음 방문했을 때 거지로 바글바글했던 것이 지금은 거지를 거칠게 할 수 있고 오히려 방문객이 환영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 때. 그때 그렇게 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편이다”고 전하는 안씨는 베트남 국민의 밝고 부지런한 모습이 베트남의 큰 매력이라고 한다. 국제비행과 해운도시인 동태우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안씨는 베트남 곳곳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남해안지방엔 뱀 뱀이 많이 있는데, 그 곳 조그만 강이 유시정 야구마는 뱀 뱀이 많이 있는데 그 강에서 뱀 죽었다”며 또 다시 베트남을 가고 싶다고 말한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학술단신

서울,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외대지부 공개 토론회 열어

서울메를러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외대지부는 오는 29일(수) 오후 6시 1501 강의실에서 '박정희-위대한 지도자인가, 단순히 군사독재자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국민연대 발족 등 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현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행보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민주화운동 기념관(추) 자료실장인 정명혁씨가 강사로 나섰다. 전씨는 현재 박정희 기념관 건립반대 국민연대와 함께 '박정희 실정책'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 노동당 학생그룹 발원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참여 가능하다.

오는 25일(토), 국제지역학회  
추계 학술대회

국제지역학회의 추계 학술대회가 오는 25일(토) 오후 1시, 서울메를러 사회과학관 305호에서 열린다. 총 4시간여 동안 1, 2부로 나누어 6개 부문의 발표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유럽, 일본, 미국, 동남아 관련 발표와 통일정책과 발맞춰 북한의 경제대국으로 관련 시간도 주제로 채택됐다.

행사는 조화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 '프랑스 사회민주주의와 한국에서의 그 적용 가능성' (발표: 신민철 박사), '강성대국론의 구호에 관한 연구' (발표: 김갑석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에 이어 2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과 이해관계의 역할' (발표: 김갑석 박사), '동남아 인도인사회의 세력권' (발표: 양승운 교수) 등의 발표가 준비됐다.

기고글 - 한국언론의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

# 자본 앞에 당당한 신문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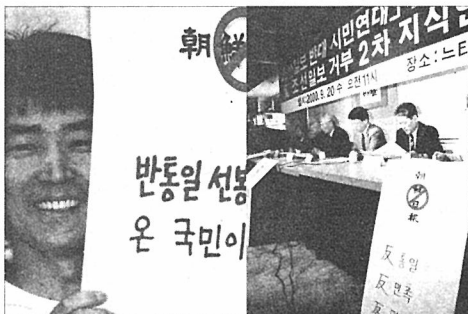
“이제까지 언론의 정치적 개입은 언론 자유의 가장 큰 장애였다. 역대 언론의 통제와 통제 속에 기업화한 중앙 일간지들의 행태는 자본의 개입이라는 또 다른 폐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권력적인 언론 속에서 기생하는 언론 종사자들의 폐해 역시 적지 않다.

이제 신문이 아끼고 있는 폐해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낄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수준을 벗어났다. 아니 기존의 신문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언론의 자유'와 무관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다.

최근 시민연문운동 단체들이 신문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권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 못지 않게 신문을 신문 본연의 자세로 되돌려 놓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러면 신문개혁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즉 신문 소유주에 의한 '자유화'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문 소유구조 개혁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현행 신문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고 있는 반면 자본의 속박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언론인들의 편집 자율권도 극도로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무엇보다도 신문의 소유구조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신문의 소유를 통제하는 것은 전통적인 언론 자유의 논리와 배치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언론개혁을 독촉한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한 지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언론자유와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첫째, 소유가 집중된 재벌 언론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관련 유익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심지어 언론은 재벌 언론, 즉 재벌 언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성에 할 상가에 적·간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소유주인 재벌 또는 재벌 체제의 비리에 눈을 감거나 오히려 옹호하기도 하는 왜곡된 언론 행위를 해왔다.

둘째, 이러한 파행적인 언론 행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적 성격을 지니야 하는 언론의 소유가 자본 또는 특정 재벌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소유구조의 본질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발전 경향은 사회적 자본의 집적을 통한 자본 축적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물며 언론 산업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특성으로 하는 만큼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 재벌과 특권의 소유 집중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소유의 금지 또는 제한은 소수에 집중된 언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경쟁적 언론 체제를 형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정상화가 목적이 아닌, 사회 전체 여론의 다양성 확보 또는 언론 권력 분산이라는 신문의 공적 성격의 회복 논리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유 집중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경영의 논리 즉 상업적 논리가 언론의 활동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을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편집권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편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위원을 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위원을 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위원을 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가 라 니

### DJ 노믹스



“최근 DJ 노믹스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위기를 한창 타고 있는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공공연히 돌리고 있는 얘기다.

많이 들었으면서도 정확한 뜻이 될까?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되는 이 말은 김대중 대통령을 지칭하는 DJ와 경제란 뜻의 Economics를 합친 용어이다.

이는 IMF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재차한 경제활력화 방안 민주당의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시장에 맡기는 ‘자유방임’에서 경쟁유발, 관여금융, 부정부채 해결 등 정부가 시장규율을 일정 부분 통제한다는 것이다.

자료집이 나오게 된 과정 등을 소개해달라

“2000 사회과학과 자료집”은 지난 여름말과 8주동안 진행했던 사회과학과의 각 세미나 등에서 나온 발제문과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 9월 초 세미나가 종료된 후,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자료집’ 팀을 구성하여 11월까지 발제문을 수습,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자료집을 본 목적은 우선 세미나 참가자들이 세미나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의 의미를 증폭시키는데 있다. 다섯팀의 커리큘럼, 자료 모음을 한데

## “2000 사회 과학화과 자료집” 낸 이 현(서양·스칸디나비아어 95)군을 만나 “어려운 가운데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뭇어 많이 퍼 방대하다.

### 자료집의 구성,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한다

자료집은 크게 7개의 파트로 되어있다. 1부는 사회과학과 관련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평가서 및 과제를 실었다. 2부에서 6부까지는 사회과학과에서 진행되었던 다섯 세미나 팀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참조주의 기초, 참조주의 심화, 정치경제학의 문제설정과 현대사회의 문제, 문화와 사회, 한국현대사 심화) 7부는 우리의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있는 커리큘럼 및 밑글귀를 실었다.

### 지난 4월에는 커리큘럼 준비회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일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외대 내 학회가 할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산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일단 급하게라도 산책 맛이 들어가서 세미나를 도와준다는지 또는 어떤 ‘연말’ 모임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식의 즉각적인 수월은 없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계획’을 개선하는 ‘보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학회의 올바른 상을 수립하는 논의를 제기하고 학회를 이끌 수 있는 커리큘럼과 자료를 모아 커리큘럼을 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학회운동이 되길 바라는 데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으로 일차적으로 지난 4월 커리큘럼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 외대 내 어려움에 처한 학회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해달라

실제로 외대 내 학회는 그 존재가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학회도 ‘학내 학회’ 또는 ‘교내학회’ 수준이다. 학생운동의 약화에도 상관이 있겠지만, 외대의 경우는 특수하게 97년 한동안 유행했던 ‘지역학’ 붐의 원인이 크다. 지역학에 맞추어 베트남어과에서 베트남 혁명사를 공부하는 이른바 ‘전공과 학회를 일치시킬 수 있는 초기발상’과 달리 산책문이 졸업하지 곧 전공과다 모일므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 개인적으로 학회를 정의한다면

학회는 학회운동이다. 80년대부터 한국사회 대학에게 있어 내려오는 하나의 상징이며 무시할 수 없는 역사이다. 학회란 우리내에 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단위로써 공부와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형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자료집을 낸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다양한 운동단체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성과들이 적극적으로 유효되어 할 대학에서 오히려 그것들이 배척되고 있는 것을 본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객관적 상황이 좋은 적은 없다. 어려움에 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다시금 진보적 학회학술운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대학사회가 치열한 문제의식을 되찾는데 이 책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윤홍은 기자

## 영웅소설가

“O...일본 무익단원인 ‘재해사고과사’를 만드는 회와 지방자치제 지만담 조치를 중심으로 얼마전 한민회 외국 교과서의 채택정인 문물을 광범위하게 받고 있다. 태평양전쟁의 신화화, 일제치하 한국과의 관계 등이 특히 왜곡되었다고 한다. 이미 일본 지방자치 15곳이 수용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에 우리 크로니클자 왓 “일본 역사학자가 영웅소설을 쓴다면 아마 매우 베스트셀러가 될까?”

(홍)

“O...사립학교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37년간 총장 부자세습의 신화를 이루며 독재를 자행하는 학교가 있으니 바로 대구의 ‘대학, 재단세습에서 밀려난 학생·교수인도 수심만대, 도무지 구상원들을 개뿔 취급한다...’

이에 열병은 우리 크로니클자, “한 학기에 200만원 넘는 돈을 갖다버려 노에 노릇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곳이 있나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래!”

(정경)



“O...서울메를러 35대 총학생회 선거는 두 후보의 표차 보다 무효표가 많아 무효표를 재검표하는 유예없는 일이 발생했다. 500여표의 유효한 무효표는 선관위원들의 재검표를 거처후 300여표로 줄어들었는데... 하지만 그 중 200여표는 의도명백한 무효표였다는데... 재검표를 지친 선관위원 왓 “공권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계라니 있어야지.” 앞에서 이를 들은 크로니클자, “그런 기계가 있다면 후보자들이 더욱 필요할까?”

(외)

## 무효표와 심리분석

## 바를 받습니다

지난 776호 1면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대외동맹 구조조정”으로 “가나동 민주노동당 학생그룹을 민주노동당 학원(교내)로 대체”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사내용중 “사족, 노동조합, 정부, 재벌단의 4자 협의에 구상”을 “4자 협의에 구상”을 보도했습니다.

## 외대학보

# 비둘기철판

이렇습니다

## 이문벌

### 말입니다

· 박정희-위대한 독재자인가? 단순히 군사독재자인가? 특별공개토론회가 열립니다.  
연사: 정명혁, 민주화운동 기념관(추) 자료실장으로서 현재 박정희 기념관 건립반대 국민연대와 함께 《박정희 실정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때: 29일(수) 오후 6시 / 1501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외대지부)

· (KTOBERFEST) 오는 30일(목) 늦은 5시 대학로 소잔당 4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단상이 독일어라면 그렇게 있지 말고 같이 가요!

(화신 독일어과)

· ‘참말’ 아학사생명을 찾고 있으며, 아학 위치는 황제 1등 통사무소 3층입니다. 이 곳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1년 8월까지 임시정소입니다. 연락처는 916-1707(영원지하) 늦은 7시 30분(이후), 01-9935-5112(아무때나)입니다.

(참말 아학)

### 마입니다

· 16M RAM(72pin)판입니다. 가격은 개당 25,000원이고 수량은 4개입니다. 연락처는 011-447-1912(이후)로, 정보를 받지 않으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주의! 요즘 컴퓨터에 사용하는 168pin과 혼동하지 마세요. (16M RAM(72pin) 판은 이)

## 왕산골

### 말입니다

· www.cafe.daum.net/ufds 오면 경성대 학생회가 있어요. 오셔서 정갈대를 한 번 둘러보세요.

(청년 경성대 학생회)

· 생일이랑이구요? 들고있는 음악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FTS307@harmail.net과 상의하세요.

(FTS)

· 자아 ~세도남~ 몸치 한민!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아랑 몸치 패요. 연현,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주지하지 말고 016-9639-4683으로 연락주세요.

(아랑 몸치패)

· Studio A에서 제 1회 사비어 축구대회를 연다. 대회기간은 오는 27일~30일, 30일~1일까지 대회기간이고 장소는 학생회관 208호입니다. 우승하면 반지까지 준대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Studio A)

· 복사실에서 부탁합니다. 종이가 너무 많이 없어집니다. 정말 복사가 필요하면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시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주세요.

(복사실)

· 중국어과 00학번 모교지까지요. 12월 12일 유방만 동아리무으로 갑니다. 커피는 15,000원이예요.

(중국어과 00학번)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골까지로 주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661-4152, 4466 팩스: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1)330-4112



